koha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 기금 모금 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및 단합
▷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
3. 기부혜택
▷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지원대상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
(010-2345-3035)

2025년 장학금지급 시행

협회 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회원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추천 바랍니다.

1. 목적
1) 안전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2)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젊은 인재 발굴

2. 지급방법
1) 인원 : 5~7명
2) 금액 : 100만원/1인
3) 지급명의 : (사)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기금운영위원장

3. 자격요건
1) 협회 회원(정회원, 평생회원)외 회원 가입 예정자도 가능
2) 안전보건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성적 3.5 이상
3) 안전보건업무 종사자

4. 추천자
1) 협회 실행임원(회장, 이사, 감사), 평생회원
2)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장
3) 발전기금운영위원장 및 발전기금운영위원

5. 제출기한 및 합격자 발표
1) 제출기한 : 2025.11.10 (접수 : koha-mc@naver.com)
2) 제출서류 : 직장·학교의 재직(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합격자 발표 : 2025.11.17. (개별 연락 및 협회 홈페이지)

6. 기타문의 : 사무국(koha-mc@naver.com)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10. 16.

정부 · 국회

(보도참고) 고용노동부,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www.moel.go.kr)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 방법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다.

* 지방관서별 대표 이메일 등을 통한 임시 온라인 민원 접수, 임시 노사누리 개통을 통한 민원접수 및 신고사건처리 대장의 관리 등

오늘부터는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15시 이후 ~)하여 입법예고 등 공지 사항, 공고 및 고시, 보도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 산업안전 분야 정책도 게시판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기능도 복구되어 과태료 징수・수납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업무 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과태료관리, 배우리(직원 교육・신청 등 학습관리)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임시 대표 누리집의 개통으로 부처 필수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국민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구 단계별 현황과 대체 이용 방법을 수시로 안내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board/view?&menuKey=xDXDhHPqFO&bbsId=BOARD00002&schType=0&schText=&boardStyle=&ctgryNo=&cntntNm=&pstOtptCnt=0&ntnNm=&pageNum=1&rowCnt=10&no1=6&regNo=6QK1LymWur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노·사 공감, '현장지원 TF' 논의 가속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의 노력을 다 하자는 경영계-노동계의 공감대를 토대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TF'를 운영·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현장지원 TF'를 통해 경영계 및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검토해 나가면서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조선·철강·자동차·물류 등 협·단체,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어, 우선 9월 한 달 동안 16차례, 73여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차관, 실・국장이 전방위적으로 집중적인 현장 소통을 실시했다.

기업들은 정부에서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특히, 원·하청 교섭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 철강, 자동차, 물류업계 등은 신속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장 노동자가 직접 당면한 상황과 의견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양대노총의 주요 산별* 노조의 현장 의견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 주로, 총연맹 단위에서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주요 법리적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장 노동자(사내하청 노조 위원장 등)가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실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국노총) 금속노련, 공공연맹, 포스코 하청 노조 등(민주노총) 금속, 건설, 공공운수, 보건의료, 서비스연맹 등

노동계 현장에서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9월에 경영계 및 노동계의 현장 의견수렴 위주로 하고 있지만,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계로 확대해 나가고,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정 노조법 관련 현장 상황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board/view?&menuKey=xDXDhHPqFO&bbsId=BOARD00002&schType=0&schText=&boardStyle=&ctgryNo=&cntntNm=&pstOtptCnt=0&ntnNm=&pageNum=2&rowCnt=10&no1=16&regNo=v2xoawWXQc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10. 16.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9/17, 경남 창원시] 방수포를 정리하던 중 떨어짐
[9/24, 경기 가평군] 지게차로 운반 중인 포대자루에 깔림
[9/27, 서울 중구] 리프트와 바닥 사이에 끼임
[9/27, 인천 남동구] 철근 조립 중 바닥에 떨어짐
[9/29, 울산 울주군] 굴착기가 넘어져 깔림
[9/30, 인천 서구] 저수조 덮개가 파손돼 떨어짐
[9/29, 경북 포항시] 천공작업 중 회전하는 드릴에 맞음
[10/1, 경북 고령군] 가지치기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10/1, 세종 전동면] 철골 조립 작업 중 떨어짐
[10/13, 경남 창원시]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힘

안전활동 우수기업에 금융혜택 지원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IBK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협약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감면 등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10월 1일(수) 15시, 기업은행 본사(서울 소재)에서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 일시 : 2025. 10. 1.(수) 15:00~
- 장소 : 기업은행 본사 대회의실(10F)
- 참석 :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등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등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 등
(기술보증기금) 박주선 전무이사 등

이번 협약에서 4개 기관은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보증지원 확대 ▲우수기업 발굴 및 정보 공유 ▲안전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연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감면(최대1.5%), 보증비율 100%, 보증수수료 감면(0.2%)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650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공공기관 산재예방 방향제시

-『공공기관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안전부서장 한자리에
- 산재사망사고 근절과 미래 안전혁신 방안 모색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14일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안전보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구현에 맞춰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총 11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
- 일시 : 2025. 10. 14.(화) 13:30~
- 장소 : 안전보건공단 본부(울산) 6층 대청마루
- 참석 :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울산 권역 공공기관 11개 기관 부서장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서장들은 '안전 실천의지 합동 결의식'을 통해 안전보건 강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짐했다. 또한 '안전보건 혁신과 미래 대응 모색'을 주제로 ▲스마트 안전기술 전망 및 도입 방향(안전보건공단 정광재 스마트안전연구부장)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 및 시사점(나민오 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향상 방안(안전보건공단 김판기 안전보건평가실장) 등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각 기관의 부서장들이 상호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중 이사장은 "정부의 '9.15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공공기관이 안전한 일터 구축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653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10. 16.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25년도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추계 세미나 개최

2025년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이하 기산협) 추계 세미나를 위와 같이 개최합니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동향과 전문가 특강, 기업체의 우수사례 발표 등 실질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회원사 및 기업체의 안전보건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isanhyup.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29

안전신문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위험 정보 공표

1,4-부탄설톤 등 위험성이 확인된 20종을 비롯해 신규화학물질 60종에 대한 정보가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5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돼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승인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66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10. 16.

안전신문

기후노동위 국감장 나온 정종철 쿠팡CFS 대표 "안전에 더 매진"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안전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쿠팡 4개 계열사 224개 사업장에서 총 4552건의 동일 유형 산재가 발생했다. 쿠팡CFS 고양센터 172건, 동탄센터 107건, 인천4센터 90건의 산재가 났다.

특히 산재 유형을 보면 넘어짐 54건, 부딪힘 44건, 무리한 동작 31건 등 같은 유형 사고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저희(쿠팡)가 사건 수는 많지만 저희만 해도 직원이 6만명이다. 산업재해율은 낮다"고 해명했다.

쿠팡의 안전 철학인 '쿠팡의 안전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에 관해 "지금이 언젠가"라고 질의를 받은 정 대표는 "안전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반입 관련 문제에 관해 정 대표는 "통계 자료를 보면 넘어짐과 부딪힘 산재가 많아 휴대전화 반입과 사용을 허용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다"면서도 휴대전화 소지 시범 실시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 문제 관련 김영훈 노동장관에게는 "노동 현장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다수 이직했다"며 "최근 서울강남지청 감독관들이 쿠팡CLS에 재취업한 전직 간부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은 사실이 있어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와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이 지적됐다.

이에 김 장관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불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894

SPC 대표, 안전관리자 경력 채용 및 작업복 재질 교체 전향적 입장

도세호 SPC 대표가 반복되는 사내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자 경력 채용과 작업복 재질 교체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도 대표는 15일 국회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서 SPC서 자주 사고가 나는 이유에 관한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이날 실제 SPC 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질의한 김소희 위원은 자신의 옷을 두고 "현장서 근로자들이 입고 계신 옷이다. 돌아가신 분 생각하시면서 답변 잘해달라"고 운을 뗐다.

그는 "2022년, 2024년, 올해까지 연달아 사고가 났다. SPC에서 자주 사고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고 추궁을 했고 도 대표는 "2022년 사고 이후에 안전투자 1000억 정도해서 올 9월까지 1000억을 넘겼고 다시 624억이란 재원을 만들어 노후설비, 안전설비, 위험설비에 대한 자동화 등을 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투자를 했는데도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고 도 대표는 "시화 사건 이후에 대통령께서 방문해 장기근로, 야간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야간 시간대 안전관리자 문제를 꺼내 든 김 위원은 공장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알리면서 "안전관리자들이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 이번 5월 사고의 경우 새벽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대표는 "야간에는 안전을 책임지는 점검자들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들이 있는데도 올 5월 SPC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선 근무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SPC에 102명의 안전관리자가 있고 삼립에는 연말되면 3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도 대표는 밝혔다.

김 위원은 "안전관리자 직급도 대부분 사원급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도 대표는 "안전관리자들이 30% 정도가 과장급 이상이고 그 외엔 직급이 낮다"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경력있는 안전관리자들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자신이 입은 작업복이 폴리에스테르 65% 소재 작업복으로 잘 안 찢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외에선 어디에 끼였을 때 힘으로 빼면 찢어지는 게 있는데 단가가 있다"면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를 도 대표에 물었다.

도 대표는 이에 "재질을 교체한 근무복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영훈 노동장관도 작업복 재질 교체에 관해 검토할 것을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896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10. 16.

오이레터

수확과 수탈 사이, 노동자의 몸과 마음

직업건강의 관점에서 본 농업인의 일과 삶

종종 농촌의 생활은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수확의 현장을 가족과 함께 걷는 장면, 들판 위의 여유로운 대화, 곡식 냄새 가득한 저녁 풍경 등은 한 폭의 목가적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온 가족이 함께해야 했던 육체적으로 고된 수동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농업 생활에 대한 낭만적 묘사와 실제 농민의 비참한 노동 조건 사이의 불일치는 무려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하는 일은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실상은 고된 육체노동과 날씨·일조 시간에 따른 시간적 압박까지 동반된 작업입니다. '타작' 장면 속 농부들은 무거운 볏단을 들고 내리치며, 쪼그려 앉아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동작은 오늘날 직업의학에서 말하는 반복 작업, 강도 높은 상지 사용, 허리 굴곡, 무릎 부담자세에 따른 인간공학적 부담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확한 볏짚에서 날리는 먼지와 분진은 호흡기계 위험, 즉 직업성 천식이나 과민성 폐렴(hypersensitivity alveolitis)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에는 균,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 곡물 단백질, 곤충 배설물 등이 포함돼 있기에, 반복 노출 시 심각한 호흡기계 질병 위험을 내포합니다. 현대 직업환경에서도 농업 기계화가 진행되었지만, 기계화는 분진량을 줄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음, 진동, 신체접촉 상해 등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 타작; 打作 〉은 단지 풍속화가 아니라, 농민의 삶을 통한 사회의 구조적 얼굴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18세기 농민의 고통은, 지금도 과로, 직장 내 역할 갈등, 근골격계 신체부담, 분진노출이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노동자 건강을 다루는 직업환경의학이 '숫자'뿐 아니라 '감정'과 '관계', 그리고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49

갑년(Pack-years)에서 시작된 누적노출지표 이야기

누적 노출량을 나타내는 단위

https://52letter.stibee.com/p/150유해 인자에 단시간 고농도로 노출되면 급성 중독이나 급성 손상이 발생합니다. 급성 독성 프로파일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사고 경위만 잘 조사하면 원인 파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낮은 수준의 노출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인과성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출 강도와 시간을 결합한 단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Pack-years

갑년(Pack-years)은 널리 알려진 누적노출량의 단위입니다.

이는 최초의 누적노출량 단위로 추정됩니다. 미국 NCI(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발간하는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흡연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갑 수에 흡연 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갑년은 1년 동안 매일 1갑을 피우는 경우 또는 반년 동안 매일 2갑을 피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940년대 후반 영국에서 폐암 발생이 급증하자, 리처드 돌과 브래드퍼드 힐은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을 연구하며 "cigarettes per day", "years smoked", "lifetime cigarettes"라는 노출지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후대 연구자들은 이를 계산하기 쉬운 Pack-years라는 단위로 개선했습니다. 최초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50~60년대를 거치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 단위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헌을 추적한 결과, Pack-years를 처음 사용한 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leasants RA et al. Both Duration and Pack-Years of Tobacco Smoking Should Be Used for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Ann Am Thorac Soc. 2020 Jul;17(7):804-806.
2) Franklin W et al.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emphysema; a disease of smokers. Ann Intern Med. 1956;45:268–274.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50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5. 10. 16.